



# 아름다운 함께서기

아름다운가게 청년비전프로젝트 「플랜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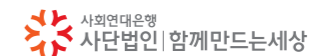




# 아름다운 함께서기

아름다운가게 청년비전프로젝트 「플랜V」

※ 책자 내 삽입된 일기 및 사진은 「플랜V」 청년들이 자신의 일상과 비전 활동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한 콘텐츠이며, 사례의 저자 이름은 본명 또는 필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2010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꾸준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가 사업을 시작한지 어느덧 10년 차가 되었을 때,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수많은 청년 중 도움이 더욱 필요한 이들은 누구일까?” 깊은 고민에 빠지며 사업을 새롭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 # 플랜V, 자립의 과정을 함께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을 보려면, 먼저 자립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립준비청년, 양육시설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자립은 안정적인 직업, 결혼과 같은 인생의 과업이 아니라, **청년 각자가 바라는 꿈, 원하는 삶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것ですよ. ‘청년비전프로젝트 「플랜V」’는 평생에 걸친 자립의 과정을 청년들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디딤돌이 되고자 기획된 사업입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찾고 이뤄가려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스스로에 대한 깊은 고민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꿈을 좇아 헤맬 수 있기 때문이죠. 「플랜V」를 통해 청년들은 **각자의 꿈을 고민해 보며 무엇이 필요할지 목표와 예산을 직접 세워갔고,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했던 문제들을 멘토와 함께 풀어나갔습니다. 또,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해에도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 # 두번째 기회, 20대 중·후반 청년과 함께

“스물다섯 살이 넘은 저도 자격이 있을까요?”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회에 나와 여러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제대로 뭔가 하고 싶어도 지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된 현재에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지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청년들은 20대 내내 방향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거듭합니다. **여느 청년의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플랜V」는 20대 중·후반의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했습니다.**

## # 아름다운 함께서기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시작된 「플랜V」를 3년간 지속해 온 것은 많은 분들께서 **청년들과 함께해주신 덕분입니다.** 청년들의 삶을 응원해 주시는 7,297명의 개인 후원자님, 22개 단체/기업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던 12명의 멘토님과 협력단체로서 든든히 사업을 운영해 주신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사례집에는 지난 3년간 청년들의 이뤄온 삶의 과정과 함께해 주신 분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널리 전해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과 응원이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곁에 늘 함께 서있겠습니다.**



모두 함께하는 텃밭을 시작했다.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 피고 작물 자라는  
모양만 봐도 웃음이 난다.

2023.5.13

# 아 다 함께 만들기 F.O



첫번째

## 청년비전프로젝트 「플랜V」

### 사업명 목적




(재)아름다운가게 청년비전프로젝트 「플랜V」<sup>1)</sup>  
보호종료 5년 이후 청년의 진로 및 금융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 적응과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

### 기간 대상

2021년 ~ 2023년(3년)  
전국 만 25세 ~ 3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67명

연도	1기	2기	3기
2021	29명	-	-
2022	12명	23명	-
2023	8명	12명	15명

### 활동내용

구분	프로그램	세부내용
 <b>지원금</b>	비전지원금	비전계획 실행을 위한 제반 비용(최대 300 ~ 500만원)
	비전생활비	생활 안정을 위한 월별 생활비(10회/300만원)
	비전적금	연속참여자 대상 자산형성을 위한 적금 매칭지원 (10회 / 150만원)
 <b>교육/컨설팅</b>	비전컨설팅 커리어 로드맵	커리어 로드맵을 통한 맞춤형 미래설계 (1:1 상담 및 정보 제공)
	금융멘토링 1:1 멘토링	비전계획 달성을 위한 계획적인 수입 및 지출관리 코칭
 <b>네트워크</b>	세줄일기	비전 활동 및 일상 공유(모바일 앱)
	소그룹 모임	학습 및 체험 등 희망하는 소그룹 활동

1) 청년 스스로 미래비전(Vision)을 세우고, 다양한(Variety) 도전을 통해 삶의 가치(Virtue)를 높이며, 활력(Vitamin)있는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플랜V」 주요 활동소개



#### 비전지원금

비전 활동 및 계획 달성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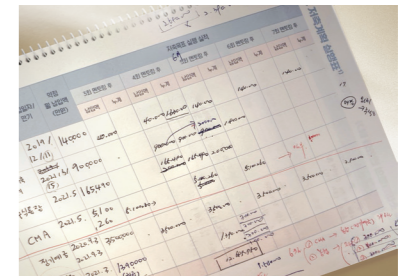
#### 비전컨설팅 커리어 로드맵

주체적인 인생 설계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커리어 로드맵 구성



#### 비전생활비

안정적인 자립 정착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월 생활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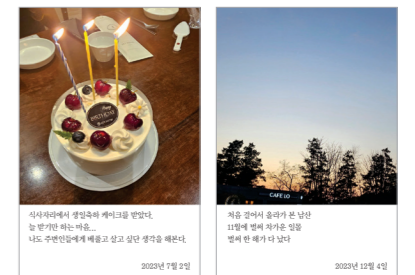
#### 금융멘토링 1:1 멘토링

지속가능한 자립 기반을 형성하는  
단계적 개인 맞춤 재무 관리와  
금융 솔루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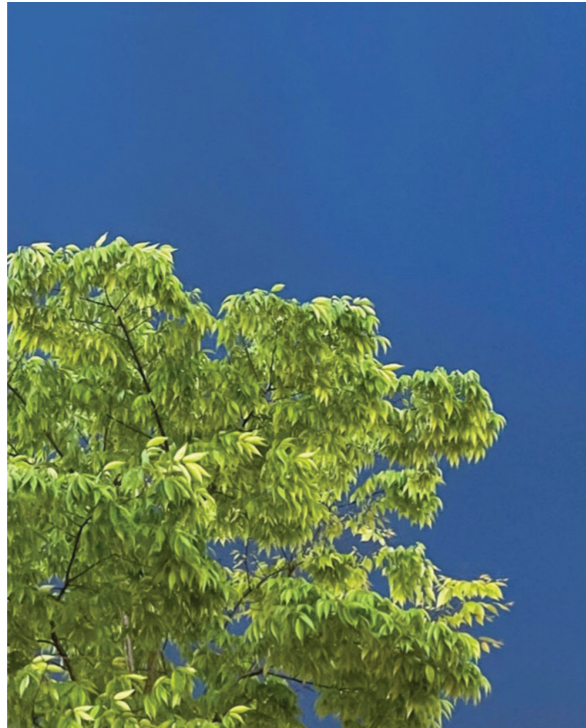
#### 비전적금

자산형성과 재정적 자립을 촉진하는  
적금 매칭



#### 세줄일기 네트워크

직접 쓴 글과 사진으로 비전 활동과  
일상을 공유하는 온라인 네트워크



이제 진짜 여름이 오나 보다... 더운 건 딱 싫은데 해야 할 일들은 많아서 분주히 움직여야 하는데... 이번 여름은 많은 의미 있는 계절이 될 것 같다.

2023.5.16

도움닫기  
발구르기  
착지하기

# 더 매 아 너

# 다 함께 꿈꾸기

두번째





“공무원이 되면 정말 행복한 삶이 되는 걸까?”

“용기가 없어 망설이기만 하는 게 답답했었죠.”

“돈, 시간,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도전하게 되었어요.”

“새롭게 도전하는 즐거움은 앞으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즐길 수 있게 했어요.”

“저도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찾아 무료 레슨을 하고 있어요.”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제 삶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년 간, 「플랜V」와 함께 67명의 청년들은 꿈을 위한 고민, 도전, 노력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중 15명의 청년들이 걸어간 삶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 이 도움닫기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는 이야기



## 자립, 너의 의미.

「플랜V」 2기 이지연

### 자립 :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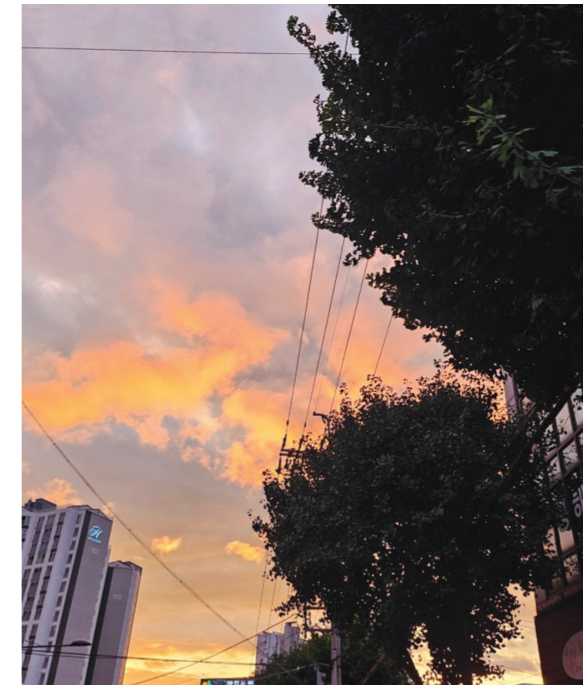
「플랜V」 참가 후, 제 삶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자립'의 의미 변화였죠. 그동안 '경제적인 안정'을 자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경제, 정신적인 안정'으로 바뀌었어요.

「플랜V」의 생활비 지원으로 경제적인 안정감을 얻었는데도 삶에서 도망치고 싶고 나를 자책하는 건 여전히더라고요. '왜 그럴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 당시 이사를 했는데,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 직장생활, 친구 관계 변화로 생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어요. 이런 게 마음엔 큰 부담이 된 것 같고 경제적 안정 못지않게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멘토님과 마음속 고민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눈앞의 문제들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여태 고민했다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멘토님과 함께 방향성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배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 나의 삶을 응원한다.'라는 사실에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게 됐어요.

멘토님뿐 아니라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도 만났는데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일도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과 함께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러면서 '경제적인 자립만으로는 완전한 자립이 아니다, 정신적인 자립이 더해지지 않으면 완전한 자립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플랜V」를 통해 얻은 안정감 덕분에 저는 이제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할 때,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과정을 즐기게 됐답니다. 도전과 배움에 대한 즐거움, 삶에 대한 즐거움을 깨닫게 하고 자립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  
너무 바쁜 나날들의 연속... 잠시  
쉬어가고 싶은 때가 종종 있다.

2023.8.12



##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은 나!

「플랜V」 3기 김수민

저의 비전은 감각통합 치료사,  
아동 발달 치료사입니다.

임상 6년 차지만 장애가 심한 아이들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럴 때마다 “이 아이는 해낼 수 있어! 좋아질 수 있어! 그리고 나도 잘할 수 있어!”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치료를 시작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는 아이들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직접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감각통합치료를란 자폐성 장애, 학습 장애 또는 감각 방어 등으로 감각통합에 장애를 겪는 영유아나 아동의 발달을 돕는 치료인데요. 이 치료로 뛰지 못하는 아이가 뛰고, 협응이 안 되던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밥 먹기 힘들어서 식사 시간을 울음바다로 만들던 아이들이 울음을 조절하게 돼요. 이렇게 아이들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각통합치료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고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에요.

저는 「플랜V」 덕분에 더 전문적인 치료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도전할 수 있었고, 이 과정을 잘 마치면 장기적인 목표에 다시 도전할 거예요. 바로 센터 관리자가 되는 건데요. 그 후엔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싶어요.

사실 제 막냇동생도 장애가 있어서 감각통합치료를 받는 장애아동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15년 전, 장애 판정을 받은 동생은 여러 병원을 전전했는데요. 당시엔 장애아동 치료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복지관, 센터 등에 대기를 걸어놓고 무작정 기다려야 했고, 비싼 치료비 때문에 부모님은 지쳐갔어요. 그런 부모님 대신에 동생과 저는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줬죠. 모두에게 힘든 시간을 보내며 우리 가족은 해체됐어요. 이 시간은 아직도 아픈 기억이에요. 이런 경험 때문이라도 제때 치료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빨리 찾아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봉사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감각통합치료 분야의 전문 교육이 부족해요. ‘감각통합협회’, ‘아동작업치료협회’ 교육이 전부고, 이마저도 인원 제한이 있어서 공연 ‘티켓팅’보다 빠른 속도로 마감되죠. 공부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부족했죠. 아쉬움을 느끼던 와중에 호주의 안젤라 선생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호주의 치료방법을 간접적으로 느껴보고 연차 높은 선생님의 전문 기술을 배우는 값진 시간을 보냈어요.

“신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죠. 저는 이제 큰 절망과 고통에 허덕일 때도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의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중’이라고 생각하며 나를 담금질하죠. 또 ‘나는 더 크게 쓰일 거야’라고 생각하며 버티는 힘을 기릅니다. 나를 만드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에요. 우리 모두 열심히 행복해져요.



## 도전하겠습니다. 목표를 찾을 때까지.

「플랜V」 2기 김준형

### Q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4년생이고 서른 살이 되던 해 「플랜V」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이 글을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플랜V」활동으로 다양한 공부를 했고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됐어요.

### Q 「플랜V」를 통해 직접 설정한 비전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처음에는 외식업에 큰 뜻을 품고 있었어요. 외식 브랜드 컨설턴트가 되고 싶었죠. 호텔조리를 전공했고 요리사와 바텐더, 소믈리에로 일해서 외식업 현장 경험이 많았거든요. 그동안 쌓은 외식업 지식을 컨설팅에 접목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데요. 노력이 부족하기도 했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 Q 결국 처음에 설정한 목표를 수정했나요?

네, 현실적인 고민이 생겼거든요. 처음에 선택한 '외식 컨설턴트'는 저를 정확히 모르고 정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해요. 물론 외식업은 남들이 쉴 때 일을 해서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도전 분야를 바꿀 수 있을까?' 생각했고 사무직을 선택했어요.

### Q 다시 설정한 목표로 취업에도 성공했나요?

지금은 작은 교육회사에서 총무로 일해요. 이 일을 찾기까지 처음엔 막막했어요. 어떤 자격증을 따라 하는지, 어떤 업무 능력이 필요한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멘토님과 대화를 많이 했고 인사 총무로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회사든 인사 총무는 있고 그만큼 다양한 회사에 취업이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 Q 목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처음에 세운 목표를 수정하고 '스스로 이룬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이버대학에 편입했고, 영어 점수를 높이는 등 나름의 성과를 이루었어요. 게다가 지금은 금융 분야의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전문성을 높이려고 회계 분야 자격증 공부도 하죠. 이번 달에 시험을 치릅니다.

### Q 외식업부터 금융업까지 도전한 분야가 다양한데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요?

사실 제 어릴 적 꿈은 요리사였어요. 그냥 막연하게 좋았거든요. 전 칭찬받은 적이 없는 아이였는데 요리했을 때 칭찬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마음이 따뜻해진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요리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요리사라는 꿈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쓴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진정 내 꿈이라고 생각했던 요리사는 포기하게 됐어요. 요리사, 외식업 컨설턴트 등 내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고 진로를 바꾸면서 생각난 노래가 있는데. 바로 에픽하이의 노래 <빈 차>예요. 이 곡에 "내가 해야 할 일, 벌어야 할 돈 말고도 '뭐'가 있었는데"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를 들으면서 "도대체 '뭐'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직 그 의미를 못 찾았어요. 하지만 언젠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뭐'를 찾고 행복해질 수 있겠죠.

### Q 확신이 없는 목표 때문에 고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저처럼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마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거 없는 '고집' 말고 자신을 믿고 타인을 수용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민하는 만큼 더 큰 성과가 돌아올 거니까요. 자신을 아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플랜V」와 후원자분들께 제 삶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기하고 도전할 용기

「플랜V」 3기 지 안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프리랜서 일을 1년하고 그만뒀네요?”  
“왜 더 해보지 않았어요?”  
송곳 같은 질문에, 알락!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플랜V」 면접날, 면접관님의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눈물이 났던 이유는 뭘까? 아마, 프리랜서를 포기할 용기도, 재취업할 용기도 없이 망설이기만 하는 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플랜V」는 두 가지 용기를 다 주었어요. 비전지원금과 생활비 지원으로 영어 공부와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에 필요한 수강료를 해결했어요. 교육비 부담을 덜고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에 합격해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취업할 수 있었어요.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부담되는 건 경제적인 문제예요. 수입이 없으면 당연히 문제고 수입이 있어도 합리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 장기적인 재정 계획 세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문제예요. 저는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수입이 늘 불안정하고 유동적이었어요. 게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빚이 쌓인 상태였고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싶어도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워크북 활동이 제일 좋았는데요. 멘토링을 받으면서 매달 가계부를 쓰는 건데, 처음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수입과 지출을 자각하고 쓸모에 따라 월급을 나눠 쓸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대출을 더 효율적으로 상환하는 방법도 배웠고 저축 금액도 전보다 훨씬 늘릴 수 있었어요. 또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는 목표도 생겼지요.

지속적인 멘토링 덕분에 배우고 결심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일회성으로 끝났다면 아마 다짐만 하고 실천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내주시는 지원과 응원이 헛되지 않도록 목표한 바를 반드시 이루고 제 인생에서 아름다운가게, 사회연대은행과 함께한 2023년을 아름답게 추억하겠습니다.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인생의 변화

2023.9.10

## 도전은 매력적인 일

「플랜V」 3기 계란밥

### Q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플랜V」 3기 계란밥입니다.  
공익변호사의 꿈을 갖고 법을 공부하고 시민단체에서 경력도 쌓았어요. 어릴 적부터 많은 분께 도움을 받아선지 자연스럽게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Q 자립 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새 진로 고민에 빠져 있어요. 사실 진로 고민이야 스무 살에 보육원에서 퇴소했을 때부터 줄곧 해왔고, 여전히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중입니다. **대학 동기들은 저를 보고 “너는 무슨 고민이 그리 많냐”, “애늬은이가 따로 없다”라고 놀리곤 하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21세기 ‘자립준비청년’의 고뇌를 아느냐?”**라고요.

### Q 인권변호사가 꿈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어릴 적 몇몇 공익변호사들을 존경했어요. 어린 제 눈에 그들은 가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계층 사다리를 성큼성큼 뛰어넘는 개척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소시민의 곁으로 돌아가서 헌신하고 사회를 정의롭게 개혁하는 모습이 마치 투사처럼 보였죠. 그들의 이야기에 가슴이 뛰었고 학구열이 타올랐어요. 덕분에 법학과를 무사히 졸업하고 시민단체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 Q 혼자서 준비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인권변호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공익, 인권 분야의 법조인이 되려고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학부 학점과 토익,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 당연히 좋아야죠. 학교마다 다르지만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 경험, 나이, 학벌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LEET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요. 계속 노력해서 능력을 키우고 그 능력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 참 멋진 일이지 않나요?

### Q 「플랜V」 멘토-멘티 간의 소통도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다고요?

네, 자주는 아니어도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멘토님께서도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덕분에 공익변호사의 꿈과 계획에 관해 마음 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멘토님께서도 멋진 꿈이라며 항상 응원 말씀 해주셨어요. 가끔 제가 하소연 섞인 말을 해도 경청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때로는 멘토님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힘이 됐어요. 멘토님께서도 기회가 닿는 곳으로 가서 근면 성실하게 삶을 살아오신 분 같고, 사회적으로 멋진 경력을 쌓으신 분이세요. **멘토님은 원하는 꿈은 따로 있었지만,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후회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멘토님의 따뜻함과 긍정 에너지를 정말 받고 싶어요.

### Q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나이에 꿈만 좇으며 사는 것이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공익변호사의 꿈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지금까지 꿈을 향해 달려왔는데요. 꿈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공익변호사라는 꿈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긴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3년간의 로스쿨 생활, 장학금 지원의 불확실성, 20대 후반까지 누군가에게 어필하고 의지해야 하는 삶, 이런 건 다소 무거운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YES!”입니다.** 도전한다는 건 매력적이잖아요. 제 역량과 행복에 집중할 수 있고요. 다른 일을 통해 자리를 잡고 또 도전 할거예요.

### Q 「플랜V」에 참여했던 소감 한마디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응원의 말을 전해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플랜V」에 참여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고 다행이었습니다. 「플랜V」에서 받은 사랑과 정성을 잊지 않고 저도 훗날 이웃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학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희로애락을 겪잖아요. 저는 어렸을 적 부모의 부재가 슬픔이 었거든요. 그런데 20대 후반쯤 되니까 기쁨도 있더라고요. ‘데이비드 레터맨 쇼’에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이혼 후 자신을 떠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부재가 감사한 건 내가 자녀의 삶에 꼭 존재하고 싶게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더 보태서 ‘부모의 기대, 부양의무에 속박되지 않을 자유로움’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 온전히 제 의지와 선택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인생 후반기에 ‘굴곡이 있어서 더 개성 있고 재미난 삶’이었다고 스스로 말해주고 싶네요.** 저는 그때까지 물 흐르듯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칭찬 쿠폰 도착! 쿠폰 디자인 너무 귀엽다. 너무 맘에 든다!!  
분실할 걸 고려하여 100장을 주문했다.  
2학기에 몇 장을 쓰게 될까? 도장 찍은 쿠폰은 얼마나 모일까?

2023.9.14

# 02

## 발구르기

꿈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는 이야기





## 작지만 옹골찬 배우

「플랜V」 1기 장세현

12년 동안 무대에 선 '배우'이고  
16명의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배우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영화 수업에서 영화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첫 시작이었죠. 지금까지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데 배우를 하면서 자립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배우로 활동한 10여 년의 시간 동안, 내가 아닌 인물이 내 안에서 태어나고 사라졌죠. 연습하다 보면 극 중 인물과 하나가 된 것 같고, 한 사람의 기쁨과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는데요. 공연이 끝나고 그 인물을 떠나보낼 땐 너무 힘이 들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게 됐고, 배우로서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플랜V」를 통해 저는, 배우로서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를 얻었어요. 감독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2022년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이 일을 바탕으로 '봉우리'라는 공연을 만들었는데, '우리 시대 청년들이 충분히 아파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공연을 통해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이런 경험은 서로의 발전을 돕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랜V」 지원을 받은 지난 3년 동안 교육, 저축, 금융 컨설팅, 네트워킹 등 도움이 꼭 필요했던 시기에 가장 적절한 도움을 받았어요. 덕분에 **자신감을 잃지 않고 꾸준히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2015년에는 '몽골 세인트뮤즈 국제연극제'에서 '남우 조연상'을, 최근에는 '서울 청소년 공연 예술제'에서 '베스트 퍼포머 상'을 수상했는데요. **유명세보다는 초심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작지만 옹골찬 배우가 되겠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내 힘의 원천, 플랜 V

「플랜V」 3기 조동현

아름다운가게 청년비전프로젝트 「플랜V」에서 얻은 힘  
믿음, 격려, 자신감, 경험.

시설 퇴소,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저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갖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요. 지금은 활동가로서 '아디주'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디주'는 '당신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 '아우프 디히 주(Auf dich zu)'에서 따왔는데요. 자립준비청년들이 서로를 도우며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과 취업, 창업 교육을 하고 있죠. 이런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건 「플랜V」에서 얻은 힘 덕분이었어요. 그 힘의 정체가 뭐냐면요.

첫째, 내 안의 동기와 열정과 믿음  
둘째, 친구와 멘토 등 주변의 지지와 격려  
셋째, 실천과 발전을 통해 얻은 자신감  
넷째, 다양한 도전을 통해 얻은 경험입니다.

물론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면서 실패, 좌절도 경험했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좌절의 시간 동안 '나 혼자 정체된 것 같은 기분'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내면의 힘을 키우는 원동력이 됐어요. 이 모든 경험이 '나의 자립'을 찾아가는 여정이었고, 소중한 나를 온전히 마주할 기회였던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 중요한 것은 내 안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정리하는 겁니다.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부엌계만 보이던 길이 어느새 선명해지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모두 힘내요.



## ‘나’는 내가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플랜V」 2기 꿈나무

### Q 이 글을 통해 만날 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립 10년 차 꿈나무입니다. 저는 요즘 어떤 일에 부닥쳤을 때 ‘내가 어른이라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자립은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떤 어른이 될까?’ 이런 생각도 자주 하는데요. 저는 ‘서로의 결핍을 충족시켜주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어른이 되고 싶은 자립 청년입니다.

### Q ‘특수교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나요?

보육 시설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언니가 있는데요. 언니는 쾌활하고 정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전 언니를 보면서 ‘왜 언니는 이곳을 안 나갈까?, 언니의 자립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과 장애인의 자립 이후의 삶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긴 거죠. 특수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계기는 **고등학생 때 읽은 『도토리의 집』이라는 책 덕분이었죠. 책 속에 등장하는 ‘도토리의 집’에선 학생들에게 스스로 살아가는 기술과 자립의 중요성을 알려줘요. 책 속의 주인공들이 졸업 후에도 선생님을 기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게 인상적이었는지 제가 선생님인 것처럼 상상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르친 학생들도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이죠. 정말 특수교사가 된다면 ‘나는 어떤 선생님일까?’ 항상 고민하고 학생들 스스로 능동적인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 Q 특수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하는데, 이미 몇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요?

임용고시에 도전하면서 많이 방향했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지?’ 걱정하고 시험 준비에 쏟은 돈과 시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란 생각에 불안하고 두려움도 컸어요. 그래서 선뜻 공부를 시작하지 못했죠. 게다가 전 지방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수능도 장기적인 계획 없이 치렀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공부하는 게 두렵고 겁이 났죠. 그런데 기간제교사로 학생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응시도 안 하고 포기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 Q 돈을 안 벌고 시험공부만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시험공부도 했어요. 공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거든요.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나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꾸준히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감을 얻게 됐죠. 합격은 못 했지만, 특수교육 현장에 필요한 중재 방법, 지도 방법을 알게 됐고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됐어요. 그리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거름이 돼서 원하는 결과를 꼭 얻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나는 합격 번호표를 받았지만, 아직 내 순서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요.

### Q 나에게 ‘자립’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선택한 것들을 책임지는 것이 자립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립을 시작했을 때 선택할 것들이 끝없이 이어지더라고요. 집 구하기, 일자리 구하기는 물론이고, 운동센터 찾기, 가구 색상 선택하기, 망가진 물건을 직접 고쳐 쓸지 수리기사에게 맡길지 결정하기 등 수도 없이 많았어요.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혼자 결정하고,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후회도 하고 결국 온전히 책임지는 게 자립이더라고요. 물론 힘들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건 “타인이 추천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자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지니 주위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꾸 떨어지는 걸 보면 특수교사는 너랑 안 맞는 직업이야. 다른 직업 찾아봐.’ 하지만 전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어요. 마음이 ‘공부하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원하는 걸 하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요.

### Q 아름다운가게 청년비전프로젝트 「플랜V」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 사업을 소개한다면?

오리엔테이션에서 담당 선생님이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든 과정을 응원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나를 긍정적으로 지지해 주는 부모님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 「플랜V」를 부모님과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 동생들이 「플랜V」를 통해 따뜻한 응원을 받으며 도전하는 용기를 얻을길 바라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 딱 내 스타일의 가방을 만드는 꿈

「플랜V」 2기 느티나무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거 하나 잘하는 나,  
꾸준히 해보자!

저는 지금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어요. 환자를 만나고 치료하는 게 저의 일이죠. 몸이나 마음 이 아픈 환자와 소통하는 일은 힘들지만 보람도 많이 느껴요. 그런 저에게 도전하고 싶은 꿈 이 생겼어요. 바로 가방 디자이너인데요. 제가 가방을 좋아하는데, 시중에선 ‘딱 내 스타일’의 가방을 찾기 어려웠던 터라 가죽공예에 도전했죠. 지금은 가방을 직접 만들고 있어요. 처음에 는 ‘난 손재주가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라며 걱정했지만,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거 하나는 잘하는 나다. 꾸준히 해보자!’라고 다짐했어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 가방을 소개시킬 날들이 기대돼요.

이 꿈은 「플랜V」와 함께 시작했기에 외롭지 않았어요. 늘 경제적인 부분을 미리 걱정을 했었는데, 멘토 선생님은 경제생활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어요. 덕분에 금액이 크진 않아도 월급이 들어왔을 때 꾸준히 저축했고, 적금이 끝났을 때 느꼈던 성취감은 잊을 수 없어요. 또 세줄 일기를 함께 쓰면서 서로 잘 모르더라도 먼발치에서 응원하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누군가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함께 공유하고 소식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렸을 땐 시설에 사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감사하 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플랜V」는 사회에 나와서도 제가 받았던 사랑과 응원을 다시 느끼게 한 프로젝트였어요. 사회에 나오면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는데, 이런 마음을 알아주고 달 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 담아 ‘나도 누군가를 돕는 따뜻한 사람이 되자’라고 다짐해봅니다. 제가 전한 선한 영향력이 단 한 명에게라도 닿는다면 다음은 더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또 그다음엔 더 많은 곳에 예쁘고 따뜻한 마음이 번지길 기대합니다.



쌀쌀한 가을이지만 많은 인파가 몰려 더웠던 가을밤  
폭죽이 터지자 더웠던 느낌은 사라지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2023.10.7

# Never give up, Challenge!

「플랜V」 1기 토깽이

블로그 05

**Q** 아름다운가게 청년비전프로젝트 「플랜V」 비전계획서에 적은  
가치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랜V」 1기 참여자입니다.  
그리고 저의 가치관은 '포기 말고 도전(Never give up, Challenge!)' 인데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꾸준히 성장하자는 제 신념을 담은 문구입니다.

**Q** 6개국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던데  
요. 제2외국어 하나만 공부해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목표  
를 가지게 됐나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영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했죠. 나중에 경영학과  
로 전과했지만요. 어릴 적부터 해외 어학연수를 꼭 가고 싶었는데, 교내 장학금과 외부 장학금을  
받아서 어학연수를 떠날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소중한 해외 탐험의 기회를 얻었죠. 이 경험이  
큰 힘이 됐는데요. 외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영어 외에도 기본으로 3개국 언어를 구사하더라고요.  
그때 자극을 받아서 저도 제2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도 꾸준히 기  
회를 찾는다면 길은 반드시 나타난다.' 이런 믿음도 갖게 됐어요.

**Q** 「플랜V」는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떤 도움이 됐나요?

꿈은 있는데 재정 문제가 제 발목을 잡았죠. 그때 알게 된 게 「플랜V」였어요. 감사하게도 선정이  
됐죠. 그리고 비전지원금으로 꿈에 그리던 중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됐어요. 아름다운가게에서 제  
가능성을 믿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결과로 보답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회화는 물론 HSK(중국어능력시험) 6급도 취득했구요. 이후에는 일본어에도 도전했어요. 지금  
은 6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자연스럽게 말하는 언어 능력자가 되  
는 게 꿈입니다.

**Q** 언어를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고요?

저에게 외국어란 접할 수 없었던 미지의 세계를 열어주는 열쇠 같아요. 나중엔 이 열쇠로 문을 열  
고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외국어 재능 기부'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얻은 재능을 통해 사회의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삶이  
안정되면, 꼭 내년이나 내후년에 재능 기부를 시작할 계획이고요.

**Q**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을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  
은 말이 있다면요?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향해 정진하고 있을 청년들을 위해 **지금 어떤 상황이든 본인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스스로 믿고 꾸준히 도전하세요. 그리고 꿈의 여정을 도와줄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응원의 마음을 담아 6개 국어로 저의 진심을 전합  
니다.

(영어) Never give up.

(중국어) 千万不要放弃。

(일본어) 絶対にあきらめないでください。

(스페인어) ¡no rendirse nunca!

(프랑스어) ne jamais abandoner.

마지막으로, 저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 「플랜V」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우리, 다시 일어서요.

「플랜V」 3기 이 름

스스로 한 선택은 아니었지만  
인생을 오롯이 살아가려면  
누구나 꼭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보다 일찍 자립한 우리  
그래서 더 서툴지만 그렇기에 더 많은  
기회와 시간이 있다고 믿어요

날씨가 늘 맑기만 하면 대지에 가뭄이 들듯이  
지금 흐린 날들을 '해피엔딩'을 위한 시련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조금 더 유쾌하게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바라는 건 건강한 자립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도전해요

그리고 잊지 말아요  
우리를 응원하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  
그 마음에 감사하고 우리 또한 베풀어요

나와 같은 우리를 온 마음으로 늘 응원해요  
나와 같은 우리의 선택과 도전을 지지해요

너무 오래 아파하지 말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요  
모든 우리

# 03

## 착지하기

한 단계 성장하는 나를 돌아보고  
내 주위를 살피는 이야기



# 지도에 없는 길을 가는 사람, ‘자립준비청년’을 응원합니다.

「플랜V」 1기 과거, 현재, 미래

##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산을 오릅니다. 한 사람은 지도에 그려진 길을 따라 걸으며 쉽게 정상에 올랐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지도에 없는 길로 접어들어서 산속을 헤매고 기어오르듯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힘들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축구교실과 중학교에서 운동 지도자로 일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를 통해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정상에 도달하는 건 누구에게나 힘들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지도에 없는 길을 헤맨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경험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 길을 헤매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요.

2020년은 제가 시설에서 퇴소하고 자립한 지 4년 차가 되는 해였는데 한국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됐어요. 제가 하던 일도 큰 타격을 입었죠. 수입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축구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물질적, 정신적으로 힘든 날들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간 덕분에였을까요?

그해 가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플랜V」에 지원했는데 운 좋게 기회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플랜V」의 도움으로 축구 협회에서 양성하는 운동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었답니다. 또 저의 일에 대한 확신,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요즘은 제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기 위해 지금 꼭 해야 할 일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지도에 없는 길을 헤맨 사람’처럼 힘들게 목표를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만큼, 저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역경 속에서도 곳곳이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는 학생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축구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일과 병행하지만 힘들진 않아요. 오히려 보람을 느낄 때가 많죠. 앞으로도 꾸준히 학생들을 발굴하고 수준급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에요.

인생에 ‘지도에 없는 길’이 많아서 정상에 도착하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을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언젠가 정상에 도착하면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세요. “힘들었지?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와줘서 고맙고, 고생했어.”** 우선 지금은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 “야호”를 외쳐보세요. 그럼 메아리가 돌아오겠지요. “파이팅~” 이렇게 말입니다. 모든 ‘자립준비청년’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 늘 배우고 앞장서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플랜V」 1기 유지훈

총 4번의 도전, 3번의 탈락.  
그리고 2022년 8월, 순경 공채 필기시험 합격

이후 실기시험, 신체검사, 체력 적성검사, 면접시험까지 쭉쭉 통과하며 그해 12월 최종합격! 저는 드디어 대한민국 경찰이 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이란 꿈을 가지게 된 건, 잘못된 일을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 형들한테 이유 없이 맞을 때, 힘이 약하고 체격이 왜소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할 때, 내 친구가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볼 때, 모든 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화가 났고 올바르게 바꾸려 했어요. 길에 넘어진 광고판조차 마음에 걸리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면 나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생 시절 진로를 정할 때쯤 법에 눈뜨기 시작했어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누군가를 도울 힘을 기를 수 있겠구나', '원하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경찰이란 꿈을 가지게 됐는데요. 대학에선 경찰 행정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바로 경찰시험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모은 돈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죠. 그러다 「플랜V」를 알게 됐고, 덕분에 순경 공채시험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2021년 8월에 처음 도전한 시험에 떨어졌어요. 이후 시험 준비를 쉬는 동안엔 '그만둘까?', '잠도 줄이면서 공부했는데 노력이 부족했나?'라며 자책했죠. 그런데 「플랜V」를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얻게 되었죠. 이번에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최대한 아껴 썼어요. 밥 먹는 시간, 강의가 끝난 뒤 쉬는 시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늘 새벽 5시에 일어났고, 5시 반에는 어김없이 학원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어요. 그리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한 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하루를 마쳤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그때처럼은 살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나에게 기회를 준 「플랜V」, 그리고 합격해서 경찰 제복을 입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버티고 또 버텼어요. 때론 지인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 같고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무너질 것 같기도 했죠. 또 불합격할 수 있다는 부담감도 컸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합격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이제 늘 원하던 모습처럼 경찰로 근무하고 있어요. 가끔은 경찰 사회의 모습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괴리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요. 어린 시절부터 쪽 가지고 있던 마음.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꾸고 싶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어요. 이제 제 목표는 경찰이 '가까운 이웃', '친절하고 믿음을 주는' 존재라는 걸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건데요. 저부터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배우는 자세로 친절하게 다가서려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세요.





## ‘매뉴얼’엔 없는 공감의 힘

「플랜V」 1기 송건흡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상담사로서 경제교육을 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귀를 기울이는데요. 「플랜V」를 통해 ‘금융 멘토링’을 받은 저의 경험은 이 일에 큰 도움이 됐어요.

「플랜V」에 신청했을 때는 전공을 살려 토목직 공무원 선발 시험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공무원 시험 수험생 2년 차였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직업이 공무원인지, 공무원이 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플랜V」 ‘금융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 나름대로 가계부 쓰는 방법도 잘 알고 있고 경제관념도 뚜렷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멘토링으로 가장 달라진 점은 가계에 끌려 다니지 않고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저의 경험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배운 것을 청년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이런 게 좋은 현상이 자꾸 되풀이된다는 ‘선순환’이 아닐까요?

매뉴얼 속의 정보는 누구나 전할 수 있지만, 공감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근무하면서 청년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에 대해 듣고, 공감하고, 자립의 ‘노하우’를 전할 수 있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이 저를 통해 그리고 「플랜V」를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내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고맙다며 만들어준 팔찌...  
오히려 내가 잘 따라와 줘서 고맙다고 말해야 할 판이다.  
오늘도 보람을 느낀다.

2023.11.1

## 버티지 말고 ‘토닥토닥’ 나를 위로해요.

「플랜V」 2기 주선린

**Q** 안녕하세요.  
후배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립을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 차 주선린입니다.

**Q** 자립을 시작한 이후 건강 문제와 교통사고로 힘든 과정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태어날 때부터 간염을 앓았고, 2019년 취업에 성공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얼굴이 함몰되고 전신이 골절되는 끔찍한 상황이었죠. 치료에만 집중해도 힘든 시기였는데, 치료비와 생계비를 혼자 해결해야 했던 터라 몸이 버티지 못할 정도로 무리하게 일을 했어요. 결국 간염은 더욱 심각한 활동성 간염이 됐고, 뇌혈관이 부풀어서 눈 건강까지 나빠졌어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더니 자립을 시작할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된 거죠.

**Q**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도움 청하는 걸 망설였다고요?

네. 혼자서 살 집을 구하고, 병원도 다녀야 하고, 돈도 벌어야 했는데요. 사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모든 걸 내가 혼자 해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심지어 저를 자책하기도 했죠.

그때, 청년비전프로젝트 「플랜V」를 통해 정서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서 진심이 담긴 도움을 받았어요.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마련할 수 있었죠.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처럼 자신을 원망하고 다그치는 삶을 사는 ‘자립준비청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해요.

**Q** 힘들다는 걸 인정하는 것조차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던 거네요. 내게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나요?

그렇죠. 전 제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남들이 ‘괜찮아?’라고 물어보면 그냥 괜찮다고 했어요. 속으론 “괜찮지 않으면? 괜찮아져야만 내가 살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도 말이에요. 물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니었어요. 단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삶이니까, 스스로 버텨야 한다고 생각한 거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공터 주차장에 앉아서 멍하니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질문해 봤어요. “너 괜찮아?” 그 순간 “아니, 안 괜찮아. 나 너무 힘들어” 진심이 담긴 답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내 마음을 알게 됐어요.

**Q** 지금은 괜찮나요?

네, 지금은 무작정 버티지 않고 나에게 ‘괜찮다’라고 답할 수 있는 하루를 살고 있어요. 또 「플랜V」를 통해 바리스타에 도전했고 주거와 생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동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알아가는 중이에요.

**Q** 혼자서 힘들게 버티고 있을지 모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따뜻한 말 부탁드립니다.

일상적인 것 하나도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삶을 오롯이 살아가는 것만으로 대견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듬는 ‘자립준비청년’이 더욱 늘어났으면 합니다. 또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살아나갈 구멍이 있다고, 스스로가 본인을 포기하지 않으면 해결 못 할 일은 없다고 다독여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이라 그런 걸까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까  
이유 없이 내가 오늘은 힘든 하루였을까  
매번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아야겠다

2023.12.1

# 아 다 함께 채우기 너



세번째

## 멘티들에게 보내는 편지

「플랜V」 멘토 손은정

멘티님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이렇게 지면에서나마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워요. 아름다운가게 「플랜V」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와 멘티로 함께한 7개월의 여정이 떠오르네요. 사업 초기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멘티님들을 직접 만날 수 없었지요. 안그래도 어색한 첫 만남인데, zoom 통한 비대면이라서 더 쑥스럽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해 하던 제 모습이 떠오르네요.

멘티님들은 이루고자 하는 꿈은 각자 달랐지만, 모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었고 열정이 대단했어요. 낮엔 일하고 밤엔 자격증 공부와 공무원 시험 준비를 병행하던 멘티님. 직장에 다니면서도 대학원 진학을 위해 저와 함께 대학별 면접을 연습한 멘티님. 갑자기 부산으로 이사한 멘티님도 있었는데, 직접 만나러 가서 부산 생활 얘기를 들으며 '하하호호' 서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두 멋진 청년이 되어 각자 도전한 분야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모습을 생각하니 설렙니다.

흔히 열정(passion)이라고 하면 '도전', '패기', '노력' 같은 단어를 떠올리기 쉽지만, 어원을 살펴보면 '참다', '견디다'라는 뜻의 라틴어 'pati'에서 유래했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다해 도전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견뎌내는 과정일 텐데요. 멘티님들 모두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멘티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도 나이를 한참 먹고 알게 된 거지만 내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는 순간 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색깔로 내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세요.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가는 것이 꼭 성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한 박자 느리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 속도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면 금상첨화겠지요.

살다 보면 다양한 도전에 부딪히고 인생 선배의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멘토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곁에 수많은 멘토가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간혹 소식 전해주세요. 멘티 여러분의 앞날이 반짝반짝 빛나길 언제나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채우기 01

## 좋은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플랜V」 멘토 한두섭

무더운 여름날 '한양도성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멘티들을 만나면 '아프다'는 말은 들어주고, 앞길을 고민할 땐 같이 걸어주곤 합니다. 이날은 변호사의 비전을 품고 법학석사시험을 준비하는 멘티를 만난 날이었어요. 금융 멘토링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걷다가 제 상업고등학교 동기 중에 주경야독해서 장원으로 대법관이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얘기를 멘티에게 건넸어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청년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마음에서였죠.

멘티들을 만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공들여 이야기하는 편인데요. 한 멘티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나요?" 그래서 답해줬죠. **"전화 한번 하는 것, 문자 한번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든든한 우군을 만들고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흐뭇한 마음에 문자를 일기장에 그대로 기록했죠.

*"자기 전에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자도록 노력해 볼게요.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어른이 없어서 인생이나 삶에 대해 고민할 때 여쭙볼 곳이 없었는데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좋은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궁금한 것이든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또 소식이 왔어요. "열심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멘토님. 내가 원하는 것도 안 될 때도 많고. 감사합니다."

한 멘티는 중견기업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라이더의 길로 돌아간 멘티도 있죠. 경제적 사정으로 진로를 여러 번 바꾼 청년도 자립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더군요. 이제 예전보다 소식이 뜸한데요. 물론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있겠지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들 곁에 함께 서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해요. "쟁기질 할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성경 속 말씀처럼, 꿈을 향해 매진하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멀리서 마음을 다해 진심을 전합니다.

채우기 02



##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 : 모든 경험이 자산입니다.

「플랜V」 멘토 임주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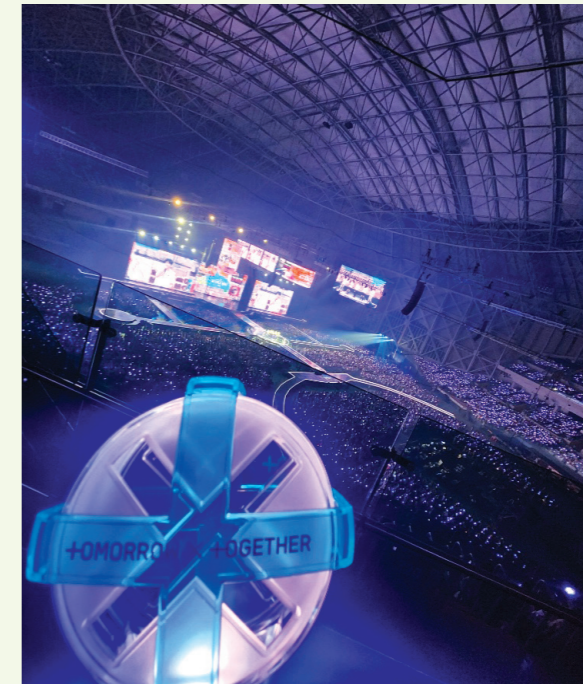
멘토링은 멘티의 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결과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플랜V」에 멘토로 참여하면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는데요. 멘티들이 각자 개성 있는 고유한 개인임을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립준비청년'이란 명칭이 그들의 존재를 덮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면접관으로 참여했을 때 청년들에게 받은 첫인상과 선입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했죠.

멘토로서 멘티의 성장을 바라지만 멘토링을 끝내고 보니 멘티들에게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가 공존합니다. 성공의 경우는 멘티가 진로 목표를 잘 설정하고 자기가 가진 자원을 적절한 방향으로 투입해서 목표를 이룬 거죠. 반면에 자신에게 맞지 않는 목표를 설정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고, 목표 자체에만 매달려 진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어요. 최종목표가 멀고 불확실하면 중간목표라도 명확해야 하는데, 중간목표마저 자주 흔들려 안타까웠죠. 목표가 흔들리는 건 중간목표 선택지가 없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너무 많아서일 겁니다.

하지만 멘토로서 실패가 눈에 보였던 경우에도 멘티의 꿈을 응원했어요. 현실성과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목표라도 멘티가 고심해 결정한 거니까요. 실패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도전조차 막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멘토가 대안을 만들어 줄 것도 아니면서 무작정 꿈을 포기하라는 건 무책임한 거죠.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언제든지 실패하게 돼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젊은 청년 시절이 실패의 적기가 아닐까요. 실패 역시, 중요한 경험자산이에요. 지금의 '나'는 경험자산이 쌓인 결과물이고, 성장하려면 성공이든 실패든 경험자산을 많이 쌓고 인생을 배워야 해요.

글을 마무리하며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목표를 향해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특히 짧은 기간에 재산을 불리려고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어도 무조건 따라 하지 마세요. 엄청난 성공담 뒤에는 엄청난 '운'이 아니라 엄청난 '준비'가 있었을 겁니다. 짧은 시간에 결판나는 운에 나를 맡기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내 운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길 바랍니다.



TXT 콘서트

언젠가 내가 만든 노래도  
세상에 숨 쉬었으면 좋겠다.

2023.12.5



9시  
53분  
퇴근길

2023.12.19

# 아 미 미 다 함께 서기



## 네번째

오랜 시간 동안, '자립준비청년'들의 곁에서 '아름다운 함께서기'에 동참한 후원자 3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 후원자 이야기

### 아름다운 참여 HISTORY

청년비전프로젝트 「플랜V」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 2010년 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특별한 매장이 세워지기 시작  
(2010년 관악자명점, 2017년 남성역점)

#### 2019년 까지

물품기부자,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참여로 만들어진 수익금과 기부금으로 401명 청년의 생활·교육·주거·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 2020년

자립준비청년을 응원하는 후원자 수가 많아지자, 마침내 「플랜V」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아름다운 후원자 이야기

이렇게 시작된 「플랜V」는 자립준비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7,297명**의 정기·일시 후원자,  
**22개 기업·단체**<sup>1)</sup>의 든든한 후원으로  
지난 **3년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자립의 과정을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전하는 세 분의 후원자 이야기를 담아 보았습니다.



1) 신한라이프, 현대모비스, 한화자산운용, 아모레퍼시픽, 브랜뉴뮤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롯데제과, 라이나전성기재단, (주)지에스리테일, 브리타, 위메프, 마크모크, 수원삼성블루윙즈, 성남시공공기관협의회, 용인문화재단, 사단법인행복나눔태권도연합회, 서울산업진흥원, 애경,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 그루핏, 아름다운가게 수원행궁점 활동천사단, 아름다운가게 온라인마켓 운영수익금

## 자립에 꼭 필요한 “나 사용 설명서”

아름다운가게 매니저 2021년 입사 김채원 (31)



### Q 우선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근무하는 김채원이라고 합니다.

### Q 김채원 님도 ‘자립준비청년’이었다고요. 청년들을 후원하는 데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그럼요. 제가 ‘자립준비청년’이었고, 자립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때 자립 정착금도 없었고 사회에 나오자마자 홀로 감당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홀로서기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누군가 곁에서 조금만 받쳐주면 더 높게 뛸 수 있고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경험 때문에 ‘다른 청년들은 나보다 더 빨리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늦더라도 틀린 건 아니지만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시간을 단축해서 더 나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에 청년들을 후원하고 계속 지켜보게 된 것 같아요.

### Q 자립은 어떻게 시작했나요?

저는 ‘그룹홈’에서 자립을 시작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NH)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는 빌라가 있어요. 진로가 결정된 청년들은 이곳에 3~6년 정도 거주할 수 있는데요. 한세대 당 퇴소 청년 서너 명에서 네다섯 명 정도가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완전한 자립을 시작했다고 느낀 건 ‘그룹홈’에서 나오면서부터예요. 그때부터 보호받을 곳이 전혀 없었어요. 혼자 감내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졌죠.

### Q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나요?

나를 너무 모르니까 스스로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사용한 방법이 있는데 나의 장점, 단점을 스스로 찾아보는 거였죠. 나를 관찰해보니 나는 자신감과 주관이 부족해서 주변에 휘둘리고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돌아본 덕분에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어요. **이젠 어딜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먼저 내 소개부터 해요. “제가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런 것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죠. 이젠 내면적으로도 완벽한 자립을 했다고 봐요.** 부모도 친구도 없이 혼자 살아남는 법을 아주 아주 천천히 배운 것 같아요.

### Q 혼자 본격적으로 자립을 시작했을 때, 가장 힘든 건 무엇이었나요?

내가 몸이 아플 때,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심리적인 고민이 있을 때, 함께 해결해 줄 창구가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썼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전혀 모르고 컸더라고요. 그래서 대인관계나 진로 결정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나한테 맞지 않는 직종을 선택해서 이종고에 시달리고 친구나 직장동료, 상사들과 소통이 힘들어서 고립되는 경험도 했어요.

### Q 아름다운가게의 청년비전프로젝트 「플랜V」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립준비청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시설 생활에선 한정된 사람들과의 관계나 내부 소통에 익숙했는데 사회에 홀로 던져지면 힘들죠. **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소통할지,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어려워해요.** 그래서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등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을 받을 기회도 없고 스스로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이런 청년들에게 「플랜V」의 멘토링은 청년들에게 심리정서적인 부분에 안정감을 주고요.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전환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보완할 점이 있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Q** 나만의 자립 '꿀팁'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거. 전 아직도 신용카드를 안 써요. 내가 가진 범위 안에서 돈을 쓰는 연습.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신용카드를 만들면 그동안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무자비한 쇼핑을 해요. 밥을 굶다가 폭식하는 것과 비슷한 거 같아요. 결국 월급보다 지출이 늘어나고 대출에 손을 벌리게 되죠. 물론 요즘은 소유로 나를 증명하는 시대라서 열등감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무소유의 가치도 있어요. 요즘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도 유행하잖아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끝까지 잘 사용하는 방식을 고민하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나 사용법' 알기예요. 물건을 구매하면 사용설명서를 읽어보고 사용하잖아요.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알아보는 것처럼 나를 잘 쓰는 방법을 알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생 목표 지점에 도달하려면 나에게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추가할 기능은 없는지, 불필요한 기능은 뭔지를 스스로 알려주는 '나 사용 설명서'를 잘 갖추란 말을 해주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고생했다"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해주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했다."라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고요. 또 "기특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자립준비청년'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삶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책임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태어나 보니 역경에 놓여있고 책임져야 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을 텐데 "너무나 잘해왔고, 지금처럼만 하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잘 견뎌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여도 내가 먼저 진심으로 다가가면 선한 사람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짠"하고 나타났진 않아요. 내 모습, 내가 가진 것들을 감추지 말고 내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당당하게 오픈하고 "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잘 자랐어요. 나는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을까요?"라고 말을 걸고 마음을 열어봐요.

내 진심을 무시하거나 악용하는 사람들은 분별해서 잘라버리고, '아름다운가게 같은 사람'을 찾아보세요. 가까운 곳에 분명히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 반짝이는 보석이 될 청년들에게

후원자 김태근 (50)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지하며 아름다운가게에 정기후원을 하는 후원자입니다. 보육원 봉사활동을 2005년에 시작했으니, 거의 20년 가까이하고 있어요. 보육원에서 어릴 때 만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어느덧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열여덟이 되니 보육원을 나가서 혼자 독립해야 하더군요.

갑자기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 같았거든요. 또 공무원이나 간호사를 준비한다고 하면 대견하게 여기지만, 가수나 발레리나가 된다고 하면 꿈을 바꿔야 한다는 어른들의 얘기도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청년들이 이런 시선과 제약에서 벗어나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도 해보고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최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금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기에 더더욱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가게에서 보컬트레이닝을 지원해 주거나 웹툰 작가의 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삼촌, 이모 같은 관계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아직 다들 **지 않아 거칠지만 곧 반짝이는 보석이 될 청년들,** 이들이 우리 사회에 단단하게 정착할 때까지 곁에서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으니, 용기를 가졌으면 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후원자 현문필 (51)

우리 동네에 아름다운가게 매장이 있거든요. 오며 가며 들르다 후원을 생각하게 됐고 2010년 5월 25일부터 시작해 13년째 후원 중입니다. 처음엔 ‘소외아동 정서 지원’으로 시작했고, 나중에 ‘자립준비청년’ 후원으로 바뀌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가족 1인당 만 원씩 4인 가족이라 매달 4만 원씩 기부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기부금이 잘 쓰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자립의 의미는 ‘내가 나를 돌보고 주변 사람들과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혼자서 자립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도움이 꼭 필요하고요.**

저는 자립을 준비할 시기에 아주 아팠는데 당시에 주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가 1997년, 우리나라에 IMF 외환위기가 닥친 상황이었고 전 대학교 4학년이었죠. 취업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수술하고 병원에 한 달 가까이 누워있었어요. 그땐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고민도 많았죠. 그런데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파트 이웃 주민, 친구와 친구 부모님까지 물심양면 도움을 주셨어요. 이런 도움이 버팀목이 돼서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걸 어려워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과 학연이나 지연 같은 특정 관계가 없어도 서로 돕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제가 받은 도움을 다 갚으려면 평생 갚아도 모자라겠지만, “자립준비청년”은 물론이고 사회의 꼭 필요한 곳에 계속 도움의 손길을 전하겠습니다.

## 「플랜V」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나눔의 씨앗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삶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튼튼한 가지와 무성한 잎을 뽐낼 수 있도록 돕고,  
자신만의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아름드리나무가 되는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자신이 얻은 씨앗을  
우리 사회 곳곳에 심어 단단한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또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곁에 함께할 수 있는  
튼튼한 나무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나눔의 순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기관소개



(재) 아름다운가게는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생태적·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시민의식의 성장과 풀뿌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입니다.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계층의 실질적 자립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회적금융 선도기관입니다.



아름다운가게  
청년비전프로젝트 「플랜V」

**발행일** 2024년 1월 27일

**발행인** 박진원, 김용덕

**발행처** (재)아름다운가게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기 획**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팀 이재은  
사회연대은행 청년성장지원2팀 채다솜



04630 서울시 중구 소공로 34

**Telephone** 1577-1113

**Fax** 02-725-8080

**Homepage** [www.beautifulstore.org](http://www.beautifulstore.org)



03076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34길 40

**Telephone** 02-3374-9637

**Fax** 02-2274-9643

**Homepage** [www.bss.or.kr](http://www.bss.or.kr)